

은행 기업대출 급증...경기불황에 부실 확대 조짐

지나해 3개 시중은행 기업 부문 부실채권 비율 일제히 상승 "가계대출 관리 강화 따른 풍선효과...건전성 예의 주시 필요"

경기 불황에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회사들이 늘면서 기업대출 부실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에 대한 돌파구로 기업대출 영업을 강화하는 가운데 향후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리금 못 갚는 기업대출 증가세 = 17일 국민·하나·우리은행 등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시중은행 3곳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업대출 중 부실채권(NPL)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의 기업대출 중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2022년 말 0.26%에서 지난해 말

0.42%로 0.16%포인트(p)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채권을 의미한다.

하나은행 역시 기업 부문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0.24%에서 0.29%로 올랐다. 우리은행의 경우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0.23%로 유지됐다.

신한은행은 오는 18일, 농협은행은 29일 차례로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데, 기업대출 부실이 점차 확대되는 흐름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흐름은 가계대출과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지난해 말 국민·하나·우리은행의 기업대출은 총 587조9772억원으로, 이 중 고정이하여신이 1조

8593억원(0.32%)이었다.

가계대출 총액 432조1484억원 가운데 고정이하여신이 7399억원(0.17%)으로 집계된 것보다 두 배 가까이 비율이 높았다.

전년 대비 부실채권 비율 상승률 역시 기업 부문이 가계 부문보다 컸다.

◇가계대출 억제 이면엔 기업대출 건전성 우려 = 기업대출 건전성 악화는 최근 은행권 기업대출이 가계대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우려를 자아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기업대출은 2022년 말 1170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247조7000억원으로 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이 1058조1000억원에서 1095조원으로 3.5% 늘어난 데 비해 증가율이 높았다.

5대 은행으로 범위를 좁히면, 지난해 기업대출

이 832조6000억원에서 888조2000억원으로 6.7% 늘는 동안 가계대출은 694조7000억원에서 694조4000억원으로 오히려 소폭 줄었다.

더구나 올해 들어서는 이런 차이가 한층 뚜렷해 지는 양상이다.

한은은 지난해 예금은행의 기업대출이 한 달 새 8조원 증가했으며, 이는 2월 기준으로 2021년(+8조9000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 증가 폭이라고 지난 13일 밝힌 바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대출을 강하게 억제하니 주요 은행들이 그 대신 기업대출을 늘려 이자이익을 유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라며 "기업대출 건전성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연합뉴스

NH농협은행 광주본부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특별 출연금 7천만원 전달



NH농협은행 광주본부(본부장 박내춘)는 지난 13일 광주 광산구청,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함께 16억8000만원 규모의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하고, 출연금 7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광산구 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지역민과 상생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협약에 따라 광산구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하고, 광산구는 1년 간 대출금 이자 중 4.5%를 이차보전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경감에 기여할 계획이다.

박내춘 본부장은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라 IMF보다 더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계신 소상공인들을 위해 NH농협은행은 광산구 금고은행으로서 광산구 내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세계 최초 HLC 기술 적용 전기차 타이어 출시

'이노비' ...겨울용 등 3개 라인업 소음 저감·연비·제동거리 극대화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이노비(EnnoV)'(사진)를 17일 출시했다. 이노비는 전기(Electric)과 혁신(Innovation)의 결합어로 금호타이어의 혁신 기술을 담아낸 전기차 전용 프리미엄 브랜드다.

이노비는 세계 최초로 단일 제품에 HLC(High Load Capacity)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전기차 전용 타이어다.

HLC 기술은 일반 타이어와 같은 공기압에서도 전기차와 같은 중량이 큰 차량의 하중을 견디고, 최적의 성능을 구현하는 구조 설계 방식이다.

이노비는 사계절용 'EnnoV PREMIUM', 겨울

용 'EnnoV Winter', 롬바일리지용 'EnnoV SUPERMILE' 3개 라인업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특히 EnnoV PREMIUM은 세계 최초로 전 구

격(29개 규격)에 HLC기술을 적용해 주행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최고의 성능을 제공한다"는 게 금호타이어 설명이다.

이노비는 타이어 홈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분산시키는 '타이어 소음 저감기술'과 타이어 내측에 부착하는 'K-Silent' 기술로 소음을 최소화했다.

패턴 설계 해석 시스템을 활용해 주행, 내마모 성능을 향상시켰다. 또 연비와 승차감, 제동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분산 정밀 실리카가 적용된 EV 전용 컴파운드를 사용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노비를 통해 타이어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시장 혁신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정일택 대표이사 사장은 "이노비(EnnoV)는 전기차에 최적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출시한 금호타이어의 혁신 제품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걸맞게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운전자에게 최상의 드라이빙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청년취업자 10명 중 1명 택배 라이더 등 단순노무직

청년취업자 10명 중 1명은 택배 라이더 등 단순노무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월평균 청년층 취업자는 389만 9000명으로 이 중 단순노무직은 34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단순노무직은 포장·운반·정소·하역 등 상대적으로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업무를 하는 취업자다.

지난해 청년층 취업자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2018년보다 5000명 줄었지만, 청년층 단순노무직은 같은 기간 약 2만명 늘었다.

이에 따라 청년층 취업자에서 단순노무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8.4%에서 지난해 9.0%로 상승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2년에는 청년층 단순노무직이 40만 3000명까지 늘면서 비중이 10.1%까지 치솟기도 했다.

최근 단순노무직 증가세는 30대 이하 젊은 연령대에서 두드러진다.

8월 기준으로 2018년과 지난해 연령별 단순노무직 비중을 비교하면 청년층(8.5→9.1%)과 30대(6.0→7.2%)에서만 증가세를 보였다. 나머지 40대(8.8→8.3%), 50대(14.5→13.1%), 60대 이상(29.7→28.5%)에서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다.

청년층 단순노무직을 산업별로 보면 택배 등 운수·창고업 증가세가 압도적이다. 운수·창고업 단순노무직에는 택배 라이더, 화물적재·하역운반 등이 속한다.

상대적으로 취업은 쉽지만 평균 소득이 낮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플랫폼 노동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택배 라이더 일자리 증가 영향으로 운수·창고업에서 청년층 단순노무직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국 기업 임금수준 월 399만8천원 중소기업도 일본 초월

한국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 일본보다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지난 20년 새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일본보다 더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02년과 2022년 한국과 일본 기업 간 임금을 분석해 이런 내용이 담긴 '한일 임금 현황 추이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쳤던 한국 대·중소기업 임금은 2022년 일본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양국 1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 월 임금총액 수준을 비교한 결과, 2002년 한국은 179만8000원으로 일본(385만4000원)에 뒤졌었다.

하지만 20년 뒤인 2022년에는 한국이 399만8000원을 기록하며 379만1000원의 일본을 앞질렀다.

규모별로 보면 한국 대기업 임금은 2002년 228만4000원에서 2022년 588만4000원으로 올랐다. 이 기간 임금 인상률은 157.6%에 달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160만8000원에서 339만9000원으로 상승해 111.4% 인상을 보였다.

일본의 경우 대기업은 483만6000원에서 443만4000원으로 줄었고, 중소기업은 310만6000원에서 326만9000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일본 대기업은 6.8% 감소, 중소기업은 7.0% 상승했다.

그 결과 한국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20년 사이 일본 기업보다 임금 수준이 더 높아지게 됐다.

경총은 2002~2022년 한일 간 실근로 시간 변화까지 감안하면 양국 임금 인상을 비교하는 데 크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더 근로 시간이 20년 사이 13.8% 감소(초과근로시간 제외)하는 동안 월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은 122.3% 증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신세계 '송지오 움므'-'워너브라더스' 콜라보 컬렉션 선보여

광주신세계는 오는 24일까지 본관 1층 '송지오 움므' 팝업스토어에서 '워너브라더스'와 콜라보 상품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콜라보 컬렉션은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인 송지오 움므와 워너브라더스의 대표작 '루니톤(LOONEY TUNES)'을 재해석했다.

송지오 움므는 이번 콜라보에서 '벅스 버니 BUGS BUNNY', '트위티 버드(TWEETY BIRD)', '실베스터(SYLVESTER THE CAT)' 등 루니톤의 대표 캐릭터를 활용해 송지오 디자이너만의 정체성을 담은 상품을 선보인다.

콜라보 제품은 반팔 티셔츠 13종과 셔츠 3종으로, 대표상품으로 루니톤 스웨트 티셔츠(33만 2000원), 실베스터 엠브로이드 하프 셔츠(39만 5000원), 고스트 버니 티셔츠(30만 5000원), 벅스 버니 우븐 티셔츠(35만 원) 등이 있다.

광주신세계는 팝업 기간 내 구매고객을 대상으로는 10%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70만~10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 각각 5만원, 10만원의 금액 할인을 증정한다.

/장윤영 기자 zzang@



17일 광주신세계 직원들이 '송지오 움므' 팝업스토어에서 '워너브라더스'와 콜라보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삼성전자 무풍에어컨 출시 8년 만에 국내 누적 판매 1000만대

삼성전자 무풍에어컨이 출시 8년 만에 국내 누적 판매량 1000만 대를 달성했다.

1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출시된 무풍에어컨이 최근 판매량 1000만대를 넘어섰다.

무풍에어컨은 '직바람 없이 쾌적한 무풍'으로 에어컨 시장에 혁신적인 냉방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풍 냉방은 소비자가 삼성 무풍에어컨을 선택하는 주요 기능으로 삼성전자가 최근 3년간 무풍에어컨을 구매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구매자의 82%가 무풍 기능 때문에 삼성 에어컨을 선택했다고 답했다.

소비자들은 무풍 기능을 선호하는 이유는 ▲충거나 건조하지 않고 소음이 적은 냉방 ▲소비전력을 절약할 수 있는 높은 에너지효율 등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 무풍에어컨은 에너지 절감과 소비자 편의 기능을 줄곧 강화하고 있다. 스탠드형 제품인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갤러리'



삼성전자 모델이 삼성스토어 대치점에서 최신 무풍에어컨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는 2024년형 모든 모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또는 2등급을 획득했으며, '스마트싱스'에서 AI 절약 모드를 설정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30%까지 절약할 수 있다.

또 빅스비를 적용해 리모컨 없이 음성으로 다양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고, 간단한 음성 제어는 와이파이 연결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실내 움직임을 인지해 에어컨을 알아서

작동하는 기능을 탑재해 제품을 한층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천만 소비자들이 선택한 무풍에어컨은 혁신을 거듭하며 에어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뛰어난 냉방 성능은 물론 에너지 절감과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진화한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로또복권 (제 1111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3	13	30	33	43	45	4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714,662,540	16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47,138,490	97
3	5개 숫자일치					897,260	5,096
4	4개 숫자일치					50,000	171,363
5	3개 숫자일치					5,000	2,608,760